



3면

"지구대·파출소 빠진 자치경찰무의미"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음 5월 25일) 제330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11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내 시장·군수가 한 자리에 모여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원팀이 되어 힘을 모으기 위한 다짐의 회의를 하고 있다.

내년 예산 확보·현안 해결 '힘 모아'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도내 시장·군수가 11일 한 자리에 모여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 교육감 등이 함께해 특별한 전북을 위한 정치·관·도·시군의 탄탄한 삼각 공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1년 동안 전북은 '내규모 투자사업 최대 유치', '전북특별자치도법 등 4대 현안 법안 통과',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사업센터 유치 등 국가사업 다수 선정', '국가예산 9조원 시대 개막'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이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도민들의 갈망에 보답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시장·군수와 함께 지난 1년을 쉬지 않고 달려온 결실이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김 지사는 내년 국가예산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동력원이 될 예산임을 강조하고, 앞으로의 5개월이 국가예산 확보의 '골든타임'이라며 상

전북도-지역 국회의원-도내 시군, 예산정책협의회

김관영 지사 "향후 5개월이 골든타임... 긴밀 협력하자"
도, 기재부 심사 동향 '촉각'... 예산 최대반영에 집중

호 긴밀하게 협력해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전북특별법,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등 현안 법안의 국회 통과와 전북 금융도시 육성, 새만금 사업 예타 일괄 면제 및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 등 주요 현안 해결에도 힘을 모아 줄 것을 부탁하며, 8월 새만금패러다임대학의 성공적인 개교를 위한 관심과 협조도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전북도는 먼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기재부 예산심의 동향을 전파하며, 정치권과 시군에 기민한 대응을 요청했다.
정부 세수 감소(5월 누계 국세수입 160.2조원, 전년동기 대비 36.4조원 감소) 및 건전재정 기조(재정지출 증가율 4%(대 관리) 견제)에 따라 대내외적인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달 28일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후 각 부처에서는 예산안을 원점 재검토해 구조조정할 예산안을 기재부에 재요구한 상황이며, 기재부는 부처 재요구안을 기반으로 1차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주요 사업 부처예산 반영액 변동 사항을 신속 파악 대응하고 국가 본질 기능, 미래성장동력 등 4대 중점 투자 대상 중심으로 논리를 보강해 구조조정 방지 및 추가확보 노력을 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당면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 요청도 건의했다. 특히, 도정 현안 입법인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률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전북 국회의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전북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육성'을 위해 한국투자공사 각종 공제회의 전북 이전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만금 사업 기반시설(SOC) 예비타당성조사 일괄 면제', '새만금신항 적기 구축 및 배후부지 재정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의 힘을 보태 줄 것도 건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시군 국가예산과 현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시장·군수는 시군별 주요 국가예산 사업 및 현안을 건의하며 정치권·도와의 공조 등을 통해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앞으로도 전북도는 급변하는 기재부 심사 동향에 촉각을 세우며 정부 예산안에 전북 예산 최대 반영을 위해 집중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를 중심으로 도 지휘부와 실국이 중앙정부, 국회를 찾아 예산확보 활동을 멈추지 않고 이어 나가며, 도정 역량을 한데 모아 예산안이 최종 반영되는 그날까지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인간중심·도덕중심·지역중심을 추구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바른마음·바른생각·바른행동에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초대합니다.

구 분	모집인원	자 격 조 건
취재기자(본사)	0명	일간지 근무 경력자 우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지역주재기자(원주)	"	"

▶ 접수기간 2023년 7월 31일까지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진행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총무팀)

전주매일

학생 스마트기기 제공 '탄력'

도교육청 "두번 유찰 끝에 2개 사업자 참여 확인"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거쳐 이달 중 최종사업자 선정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생 스마트기기 제공과 관련한 조달청 입찰 결과 2개 사업자가 응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조달청이 이 중 한 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 우선협상대상자 제안 내역을 토대로 기술협상을 벌여 이달 안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로써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해 에듀테크 교육환경을 구축하겠

다는 전북교육청의 계획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입찰 공고를 냈으나, 연거푸 단일업체 응찰로 유찰되자 지난달 28일 세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민완성 미래교육과장은 "7월 중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해 스마트기기 보급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내달 말까지 시군 합동

전북도는 8월 말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15개반 45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산간 계곡 이용객이 늘어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로, 주요 단속

내용은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설치, △생물쓰레기 등의 상습 투기·적치, △야영장 운영에 따른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임목 훼손 행위, △임산물 채취나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등이다.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사업처리 및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등 후속조치할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기부하고, 혜택받고, 지역발전에 도움까지...

정음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2023.1.1.부터 전국 지자체 시행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모금된 기금은 지역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기부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
- 기부참여 개인만(법인 불가), 연간 500만원 한도
- 제공혜택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초과 시 16.5%) + 답례품(기부금의 30% 이내)
- 기부금 주민 복지 증진사업,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사용
- 기부방법 · 온라인 기부 - 고향사랑 e음 · 방문 기부 - NH농협

정음시 답례품

- 농 특 산 품 쌀, 귀리, 쌈채소, 토마토, 만감류, 잡곡류, 태추단감
- 가 공 식 품 고춧가루, 마시는 죽, 감식초, 전통주, 쌍화차, 한과, 기름세트, 떡, 복분자, 된장·간장, 등근마즙, 청국장
- 제 조 품 기능성 삼푸, 케어팩
- 고 가 답 례 품 한우, 지황제품, 마옥고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또는 '내가 방문하고 응원하고 싶은 곳'
내 고향을 사랑하는 가장 쉬운 방법, 정음고향사랑기부로 함께 해 주세요!

· 문의 : 시민소통실 대외협력팀 063-539-5067~5068